

##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임프란트를 이용한 overdenture의 임상적 증례

정유진, 한종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영동세브란스 병원

일반적으로 무치악 환자에서는 총의치로써 보철적 치료를 해왔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치료법에 잘 적응하여 별문제 없이 총의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총의치로써 단순하게 구강내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환자와 술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하악 무치악의 경우 상악에 비해 지지 조직의 면적이 상악보다 훨씬 작으며 교합력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또한 혀의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골의 흡수 속도 역시 빠르며 하악 자체의 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악이 총의치인 경우 문제는 훨씬 증폭될 것이다.

치아가 발거된 기간이 길수록 치조골의 흡수는 증가되어 의치의 안정성과 유지력이 떨어지고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치가 점진적으로 헐거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환자의 이러한 해부학적, 보철적 문제들 때문에 골내 치과용 임프란트를 이용하여 무치악 상태를 재건하고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Branemark과 그 동료들은 골내 치과용 임프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고정성 보철물으로써 하악 무치악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비록 성공적이긴 하지만 치료비가 과도하다는 점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술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밖에 임프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의 경우 환자들이 종종 발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적절한 구순 지지 및 심미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구강위생 유지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임프란트를 이용한 overdenture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래 overdenture는 소수의 잔존 치근을 이용하여 유지력의 증대를 피한 것으로써 이의 기능적 장점들은 임상적으로 증명되었다. 나아가 overdenture의 개념은 심미적인 면과 발음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의 연조직 지지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악궁관계를 가지고 있고 심하게 흡수된 악골과 같은 임상적 상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하악이 완전 무치악인 환자에서 bar를 이용한 임프란트지지 overdenture의 치료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